청주시 공원 '속' 이야기

책으로 만나는 숲해설

청주시
CHEONGJU CITY

청주시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시 공원 '속' 이야기

책으로 만나는 숲해설

청주시 CHEONGJU CITY
청주시푸른도시사업본부

들어가기에 앞서..

본책자는 청주시 공원 중 숲해설을 진행하는 6개 공원에 대하여 전문 숲해설가가 해설을 하는 방식으로 소개 및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자에 소개된 공원별 수목과 동물에 대한 설명 및 추천 탐방로를 참고하시어 공원 여가활동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원 내의 모든 식물, 과실의 무단 채집행위 및 섭취를 금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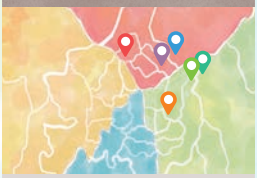
청주시 숲해설 안내

청주시 숲해설은

시민들에게 공원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생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도심 속 공원을 **교육과 힐링의 플랫폼**으로 운영하여
공원 이용 만족도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목차 | Contents

청주시 숲해설 운영 공원



· 청주시 숲해설 운영 공원 05

문암생태공원

· 숲해설 06
· 관찰 탐방로 10

당산공원

· 숲해설 12
· 관찰 탐방로 16

상당산성 옛길

· 숲해설 18
· 관찰 탐방로 22

상당산성 자연마당

· 숲해설 24
· 관찰 탐방로 28

율봉근린공원

· 숲해설 30
· 관찰 탐방로 34

새적굴공원

· 숲해설 36
· 관찰 탐방로 40

자연물을 활용한 놀이

· 단풍 색상환 만들기 43
· 나만의 곤충 만들기 44
· 산가지 놀이 45

청주시 숲해설 운영 공원

문암생태공원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명의 터

문암생태공원은 생활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곳을 안정화 작업 후
도심형 테마 공원으로 개장한 자연 친화형 공원입니다.
생태공원, 웰빙공원, 가족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어린이 놀이시설,
캠핑장, 인공폭포 등이 있습니다.
지친 일상 속에서 가벼운 나들이 여행을 떠나기 좋은 문암생태공원에 오셔서 계절별
다양한 이벤트와 풍경을 즐겨보세요.

위치 _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1097

노란 튤립꽃이 피는 튤립나무

커다란 나무에 노란 튤립꽃이 피었다?
바로 튤립나무예요.
튤립과 비슷한 꽃이 초여름에 피어서 '튤립나무',
백합꽃과 비슷해서 '백합나무', 포플러나무처럼
빨리 자라서 '옐로우 포플러'라고도 불러요.

잎을 한번 볼까요? 양버즘나무의 잎과 비슷해요. 하지만 튤립나무 잎을
자세히 보면 나뭇잎 끝이 얕은 V자 모양이고 매끈매끈하게 광택이 나지요.

튤립나뭇잎

양버즘나뭇잎

6월의 튤립나무

청주시의 튤립나무 명소

단풍이 아름다운 청남대 튤립나무 가로수 길

청주시에는 멋진 튤립나무 길이
있어요. 바로 청남대 진입로의
가로수 길이죠.
15m가 넘는 큰 튤립나무 터널은
우리나라 아름다운 길로 선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다시 걷고 싶어
하는 곳이랍니다.

귀신을 쫓는 산사나무

빨간 열매가 다닥다닥 달린 이 나무!
이 나무의 이름은 산사나무예요.
봄에는 하얀 꽃으로 벌과 나비를 유혹하더니
가을엔 빨간 열매로 우리를 유혹하네요.

산사,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산사나무 열매는 음료와 약재 등 여러 용도로 쓰여요. '산사춘'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바로 산사나무 열매로 만든 대표 술이랍니다. 또한 한방에서는 '산사자'로 부르는데 씨를 제거한 후 햇볕에 말려 달여 먹으면 혈관, 심장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고대 그리스에서도 심장질환엔 산사나무를 처방했다고 하네요!

하얗게 핀 산사나무 꽃

산사나무 열매

열매가 작은 미국산사나무

꿀팁정보!! 산사나무 아래에선 머리를 조심하라

날카롭고 뾰족한 가시 때문이지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오래전 유럽에서는 귀신을 쫓아준다고 하여 집 울타리 또는 신부의 화관과 아기의 요람에 산사나무를 이용했어요.
하지만 꽃의 향기가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해서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져요.

흰 쌀밥 꽃이 피는 이팝나무

풍성하게 핀 이팝나무꽃

까맣게 익은 이팝나무 열매

이팝나무 꽃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솜사탕? 눈꽃?

겨우내 아껴먹었던 곡식이 다 떨어져 배고픔을 견뎌야 했을 무렵, 선조들은 나무에 활짝 핀 흰 꽃을 보고 포슬포슬한 하얀 쌀밥을 떠올렸나봐요. 그래서 '이밥나무'라고 부르다 시간이 지나 '이팝나무'가 되었지요.

또한 24절기 중 하지 때 꽃이 핀다고 해서 '입하(立夏)나무'라고도 불렀다고 전해져요.

풍년을 점쳐주는 이팝나무

옛날엔 이팝나무를 보고 한 해 농사를 점쳤어요.

꽃이 많이 피었다는 것은 땅 속 수분이 충분하다는 것!

그러니 서둘러 모내기를 시작할 때지요.

"이팝나무 꽃이 풍성하니 풍년일세!"

추천 관찰 탐방로

책에 소개된 수목

Ⓐ 산사나무
Ⓑ 튤립나무
Ⓒ 이팝나무

산사나무

튤립나무

이팝나무

대표 식물

❶ 명자나무
❷ 수수꽃다리(라일락)
❸ 산딸나무
❹ 은행나무
❺ 스트로브잣나무
❻ 반송
❼ 대왕참나무
❽ 모과나무
❾ 느릅나무
❿ 메타세쿼이아
⓫ 버드나무
⓬ 배롱나무(목백일홍)
⓭ 흰말채나무
⓮ 조팝나무
⓯ 자작나무

명자나무

은행나무

메타세쿼이아

배롱나무

만날 수 있는 동물

* 붉은머리오목눈이, 물까치, 방울새, 찌르레기
* 왕잠자리
* 청개구리, 맹꽁이

당산공원

푸른 자연의 싱그러움이 있는 곳

당산공원은 옛 동부 배수지가 자연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한
도심 속 생태휴식 공간입니다.
생태계 기능을 복원하여 우암산, 무심천, 도시림을 연결하는 장소가 되어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생태계 서비스를 지속,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원은 습지 주위로 나무 데크가 깔려있는 자연마당과
향토기념 제15호로 등재되어 있는 당산 토성이 있는 숲길 산책로로 구성됩니다.
자연이 주는 초록색과 하늘이 주는 푸른색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당산공원으로 초대합니다.

위치 _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43

다섯 번 놀란다는 누리장나무

누리장나무꽃이 한창인 당산공원

누리장나무를 만나면 다섯 번 놀란대요
첫째는 꽃이 예뻐서,
둘째는 열매가 예뻐서,
셋째는 누릿한 냄새가 나서,
넷째는 약효가 좋아서,
다섯째는 어린순을 나물로 먹으면
아주 맛이 좋아 깜짝 놀란다고 해요.

10월의 누리장나무를 만나볼까요?

붉은 꽃받침과 검푸른 열매가 달렸네요.
이 열매를 보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한복에서 저고리 고름이 없어지고 브로치로 바뀌던
개화기 시절, 옛 선조들은 흑진주와 같은 장신구를 떠올려
많은 장신구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해요.
또한 그 색깔이 어찌나 곱던지, 잘 익은 열매는 하늘색, 덜 익은 열매는 옥색으로 물이 들어 농도에 따라 다양한 염색제로 사용했다지요.

누리장나무 후각 체험

누리장나무에서는 곤충이나 동물 등 외부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누릿한 장 냄새가 난다고 해요.
누리장나무의 잎과 꽃을 구분하여 냄새를 맡아보세요! 어떤 냄새가 나나요?

누리장나무 꽃

꽃향기를 맡고 찾아온 나비

누리장나무 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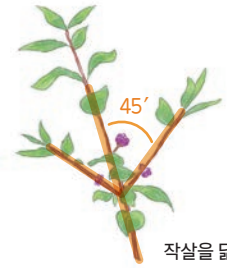
보석보다 아름다운 열매, 좀작살나무

좀작살나무 꽃

좀작살나무 열매

초가을, 당산공원에 보라색, 하얀색 보석이 열렸어요!
천상의 보석 같다고 하여 '하늘진주'라고도 불리는 좀작살나무와 흰좀작살나무가 그 주인공이에요.

작살! 왠지 섬뜩한 느낌이 드나요?



작살을 닮은 나뭇가지

옛날에는 동식물의 이름을 지을 때 모양, 냄새, 색깔 등을 보고 지었다고 해요.
'좀'이라는 말은 '작다'라는 뜻이고,
나뭇가지의 모양이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작살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에요.

좀작살나무와 흰좀작살나무, 무엇이 다를까요?

보라색 꽃과 열매가 열리면 좀작살나무,
흰 꽃과 열매가 열리면 흰좀작살나무라고 불러요.
좀작살나무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흰좀작살나무는 보기 드물지요.
당산공원으로 놀러와 좀작살나무와 함께 흰좀작살나무도 관찰해보세요.

좀작살나무와 흰좀작살나무

당산공원 수변식물의 자기소개

부들

나는야, 부들

모양은 핫도그, 막대기에 꽂힌 핫도그 같아요.
성격은 겁쟁이, 부들부들 떨며 *꽃가루받이 하지요.
직업은 청소부, 오염된 물을 깨끗이 정화해 주어요.

*꽃가루받이 : 수분이라고도 하며, 식물이 씨를 만들기 위해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붙는 현상을 말함

하늘에서 별이 내려와 앉았나?

별처럼 노란 꽃이 물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예쁘게 피어 있어요.
나는 당산공원의 별, 노랑어리연꽃이에요.

노랑어리연꽃

약해보여도 쉽게 꺾이지 않아요~!

갈대

바람이 불면 쉽게 흔들리는 모습에 약해보이지만,
아무리 심한 바람이 불어도 쉽게 꺾이지 않아요!
이런 나를 보고 지은 명언이 있다지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 파스칼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 오페라 '리골레토'

나를 보면 생각나는 게 있나요?

누구는 나를 보면 매화꽃이 생각난대요.
누구는 나를 보면 양지꽃이 생각난대요.
누구는 내 잎을 보면 싸리나무가
생각난대요.
나는요, 물을 좋아하는 물싸리꽃이에요!
꽃말 : 생각이 나요

물싸리꽃　　잎과 열매

추천 관찰 탐방로

책에 소개된 수목

Ⓐ 누리장나무
Ⓑ 부들, 물싸리
Ⓒ 노랑어리연
Ⓓ 갈대
Ⓔ 좀작살나무

누리장나무

부들

물싸리

노랑어리연

갈대

좀작살나무

대표 식물

❶ 개쉬땅나무
❷ 국수나무
❸ 팥배나무
❹ 조팝나무
❺ 등나무
❻ 노랑붓꽃
❼ 줄풀
❽ 물억새
❾ 배롱나무
❿ 단풍나무

조팝나무

노랑붓꽃

등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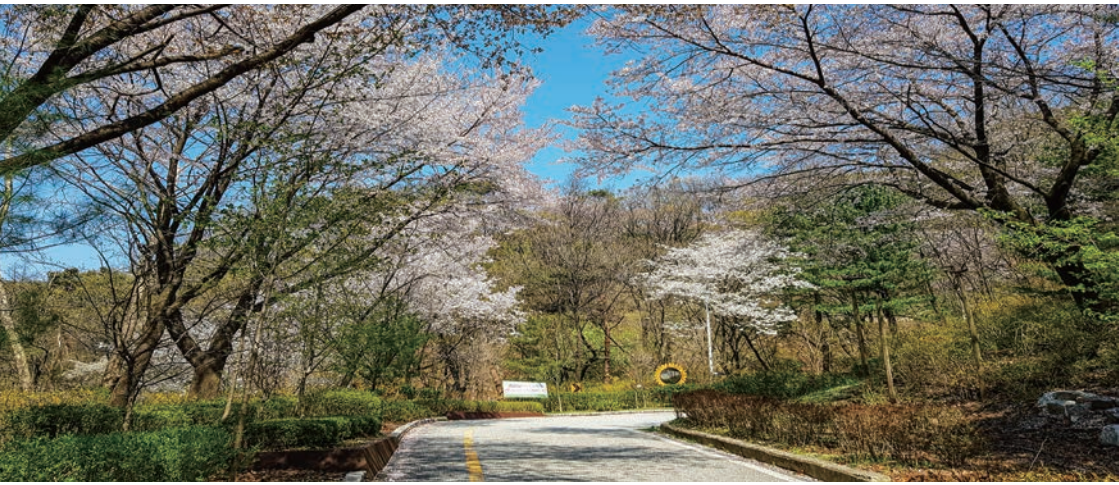
단풍나무

만날 수 있는 동물

* 까치, 딱따구리, 어치, 박새, 동고비, 직박구리, 붉은머리 오목눈이
* 여름철새 : 파랑새, 꾀꼬리, 뻐꾸기
* 고라니, 청서
* 습지
- 왜가리, 백로, 물오리
- 붕어, 피라미, 미꾸라지, 모래무지
- 다슬기, 우렁

상당산성 옛길

열두고개 설화와 함께하는 힐링 로드



상당산성 옛길은 상당산성과 청주를 잇는 옛길로, 해방 후 지방도로 이용되다 시민들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산림청 '녹색 나눔숲 사업'에 선정되어 조성된 공원입니다. 공원은 시민들의 일상에 지친 몸을 치유하는 힐링길, 훼손된 자연을 되살리는 회생길, 지역성을 표현한 흔적길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주에서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야기와 청주시의 지명유래를 적어놓은
열두고개 설화 안내판을 고개마다 비치해 청주시의 재미난 이야기를 공원 산책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 열두고개설화**

❶명암약수설화 ❷방정설화 ❸호무골설화 ❹쇠내설화 ❺장자늪설화 ❻밤고개설화 ❼애기바위설화
❽우암산 장군혈 파명당설화 ❾과상미설화 ❿중고개설화 ⓫당고개설화 ⓬천석골설화

위치 _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301-10

딸기모양 열매가 열리는 산딸나무

5월, 상당산성 옛길을 걷다 보면 초록빛 잎새 위로 하얀 바람개비가 달려 있는 나무를 볼 수 있어요. 이 나무의 이름은 산딸나무예요.

산딸나무의 꽃은 무엇일까요?

총포와 꽃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십자 모양의 잎이 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잎이 변한 '총포'라고 하는 꽃받침이에요.
실제 꽃은 총포 가운데 작은 송이들이 동글동글하게 뭉쳐 있는 것이에요.

산딸나무 열매

꽃이 지고, 총포가 떨어지면 열매가 자라는데, 가을이 되면 빨갛게 익어 마치 딸기처럼 보여요.
이 모습을 보고 산에서 나는 딸기나무라 하여 산딸나무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열매의 맛 또한 딸기처럼 달콤해서 곤충과 동물들에게 좋은 양식이 되어요.

봄의 시작을 알리는 귀룽나무

겨울을 버텨낸 앙상한 나뭇가지들 사이로 초록빛 잎으로 가장 먼저 봄을 알려주는 나무가 있어요. 바로 귀룽나무예요.

귀룽나무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진 걸까요?

수피가 거북이 등과 같고, 나뭇가지가 용을 닮았다고 하여 귀룽나무라고 지어졌다고 해요.
한 편에서는 아홉 마리 용을 뜻하는 구룡목으로 불리우다 귀룽나무로 변했다는 설도 있어요.

귀룽나무의 또 다른 이름

꽃

열매

5월 초, 흰 꽃이 하나둘 피기 시작하여 나무 전체를 뒤덮어요.
흰 꽃이 만개한 나무는 뭉게구름을 닮아 구름나무라고도 부르지요.
6월, 꽃이 진 자리에는 열매가 붉게 여무는데 다른 나무의 열매보다 새들이 유독 좋아하여 유럽에서는 bird cherry라고 부른다고 해요.

상당산성 옛길의 나비

출처 : 시사상식사전

우리나라 오천원권 지폐 뒷면을 볼까요?
신사임당의 〈초충도-수박과 맨드라미〉가
그려져 있고 나풀나풀 나는 나비가 눈에 띄네요.
수많은 곤충 가운데 지폐에 등장할 만큼 우리와 친숙한 곤충인 나비,
상당산성 옛길에는 과연 어떤 나비들이 있을까요?

날개 가장자리에 선명한 청띠가 눈에 띄는 청띠신선나비
달콤한 꿀보다는 나무진을 좋아해 꽃에는 앉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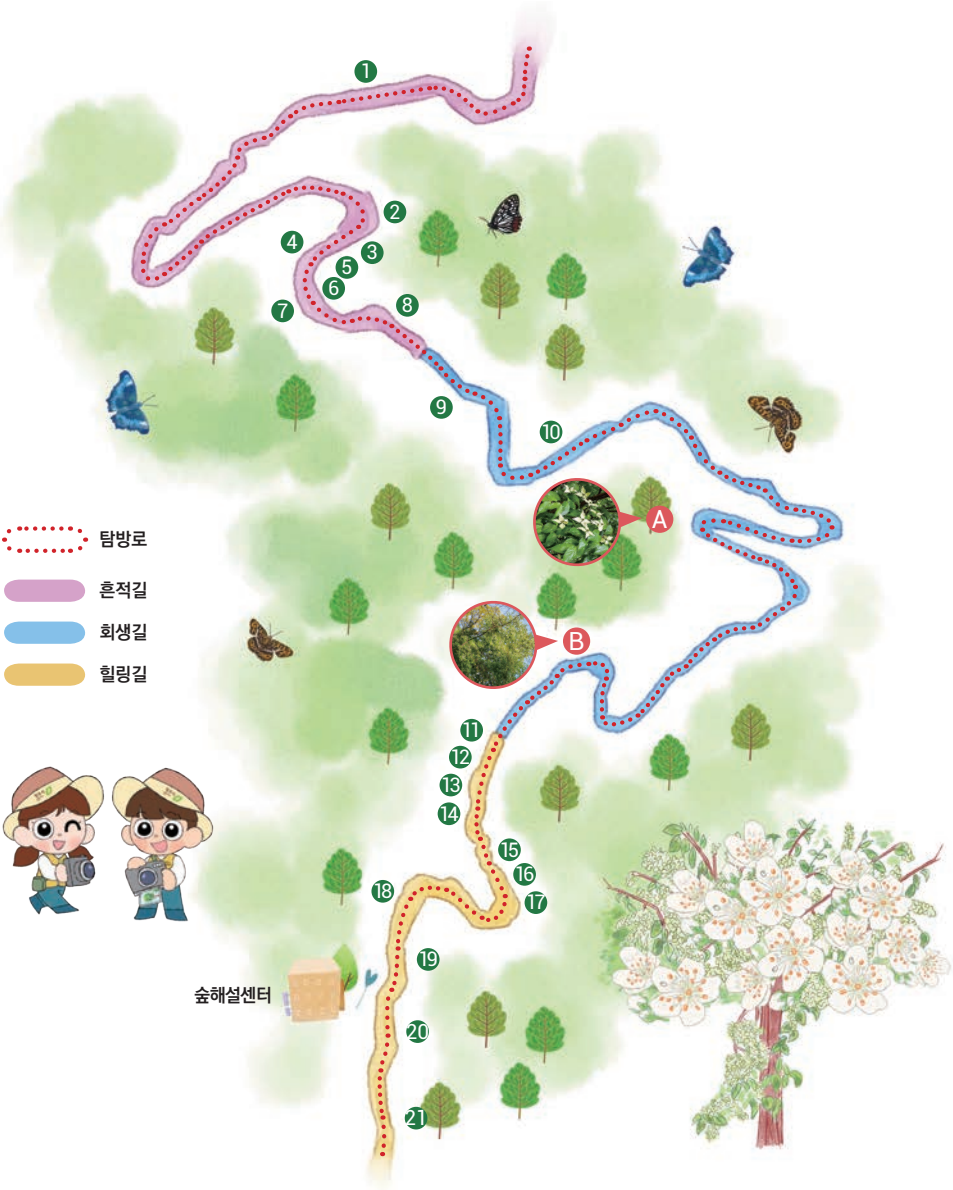
날개의 무늬가 여덟 팔자(八)를 거꾸로 세운 모양과 같아
지어진 이름인 거꾸로여덟팔나비
여러 층으로 알을 낳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제비를 닮아 지어진 이름인 제비나비
햇볕을 받으면 날개 윗면이 청록색으로 변하고 무리를 지어
텃세권을 형성하여 일정한 영역에서 활동해요.

뒷날개에 빨간 점이 특징인 홍점알락나비
식물 줄기나 가지 또는 잎에 알을 한 개씩만 낳고 부화한 애벌레
는 낙엽이나 줄기 틈에서 겨울잠을 자며 추운 겨울을 보내요.

옛길에서 만나는 다양한 나비 친구들

추천 관찰 탐방로


1
2
3
4
5
6
7
8
9
10
A
B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숲해설센터
탐방로
흔적길
회생길
힐링길

책에 소개된 동식물

Ⓐ 산딸나무
Ⓑ 귀룽나무

산딸나무

귀룽나무

전역 - 청띠신선나비, 거꾸로여덟팔나비, 제비나비, 홍점알락나비

대표 식물

❶ 덜꿩나무
❷ 자작나무쉼터
❸ 원추리
❹ 때죽나무
❺ 노루오줌
❻ 마가목
❼ 황금조팝
❽ 화살나무
❾ 벚나무길
❿ 무궁화
⓫ 산수유
⓬ 복자기
⓭ 중국단풍
⓮ 청단풍
⓯ 수수꽃다리
⓰ 서부해당화
⓱ 아그배나무
⓲ 산사나무
⓳ 참나무 6형제
⓴ 고사리
㉑ 편백나무

편백나무

산수유

무궁화

벚나무길

원추리

자작나무

상당산성 자연마당

생태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공원

상당산성 자연마당은 상당산성 휴경지를 생태적으로 복원해 다양한 생물서식처와 생태휴식 공간으로 조성한 공원으로 학생들의 생태 학습 공간 및 시민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연못 추정지를 습지로 조성하고 옛 양식창고 터는 잔디만을 심어 우선 보존 조치를 하는 등 역사적 특성과 지형적 특성을 최대한 유지하여 조성되었습니다.

다랭이논으로 이루어진 고즈넉한 경관과 더불어 다양한 양서류와 조류를 관찰 할 수 있는 생태와 역사가 함께하는 상당산성 자연마당으로 오세요.

위치 _ 청주시 상당구 성내로124번길 1

상당산성 자연마당의 마스코트 흰뺨검둥오리

뒤뚱뒤뚱 귀여운 걸음으로 상당산성 자연마당을 누비는 마스코트는 바로 흰뺨검둥오리예요.
흰뺨검둥오리는 우리나라에 겨울 철새로 들어왔으나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하여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텃새로 자리 잡았지요.

흰뺨검둥오리는 무얼 먹을까요?

먹이활동 중인 아기오리

식물과 동물을 가리지 않고 모두 먹이로 먹는 잡식성이에요. 이러한 특성으로 일부 논에서는 잡초, 해충 등을 먹게 하고 배설물은 비료로 쓰여 친환경 수질 정화 동물로 키운다고 해요.
상당산성 자연마당에서는 습지 주변에 분포해있는 풀씨, 풀줄기와 같은 식물성 먹이와 곤충, 무척추동물을 주된 먹이로 삼아요.

소중히 보호해 주세요!

상당산성 자연마당의 흰뺨검둥오리는 6~7월, 암수 한 쌍이 짝을 지어 부처꽃 안쪽에 둥지를 틀고 10~12개의 알을 낳아요. 암컷 오리가 한 달 정도 알을 품으면 귀여운 새끼 오리가 태어나지요.
암수의 생김새와 깃털 색깔이 비슷하여 성별을 구분하기 쉽지 않답니다. 오리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히 관찰해 주세요.

더운 여름을 환하게 밝혀주는 부처꽃

옛날 부처님께 연꽃을 공양하려 한 불자가 장마철, 연꽃이 물에 잠기자
대신 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이 꽃을 공양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 부처꽃을 만나 볼까요?

부처꽃은 습지나 냇가에서 잘 자라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5월부터 잎겨드랑이마다 3~5개의 진분홍 꽃잎이 층층이 달리며 피기 시작해요.
7~8월 뜨거운 햇볕을 이겨내고 가녀린 줄기로 바람을 견디며 오랫동안 꽃을 피운답니다.

부처꽃을 찾아온 손님

무더운 여름 잠자리, 벌, 나비 등 곤충들의 좋은 쉼터가 되어주고 달콤한 꿀로 일용할 양식을 주어 부처꽃 주변에는 항상 여러 곤충들이 모여요.

큰주홍부전나비

산호랑나비

순백의 꽃 백련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만개한 꽃이 청결하고 고귀하여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여겨지는 연꽃은 꽃잎이 붉은색 또는 흰색으로 피어요.
그중 꽃잎이 하얀 꽃을 백련이라고 하지요.
7~8월이 되면 꽃대가 올라오고 줄기 끝마다 한 송이의 연꽃이 피어요.
아침 햇살과 함께 4일동안 피고 지며 영양분으로 열을 내어 꽃향기를 멀리멀리 보내 곤충들을 불러내 수정을 해요.

씨앗을 품고있는 연밥

연의 땅속줄기는 바로 연근이고, 연근에 있는 많은 구멍을 통해서 땅속에서도 썩지 않고
숨을 쉬며 잘 자랄 수 있어요.
연근은 먹거리뿐 아니라 지혈 작용과 기력 회복에 좋아 귀중한 약재로도 사용되어요.

연잎과 싸이언스

연잎에 맺혀있는 물방울

연잎은 물에 젖지 않아 작은 물방울들이 동글동글하게 맺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연잎은 물과 친하지 않은 성질인 소수성을 띄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 특성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찰, 연구하여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추천 관찰 탐방로

책에 소개된 동식물

Ⓐ 흰빰검둥오리 (옛 연못터)
Ⓑ 부처꽃
Ⓒ 백련

부처꽃

백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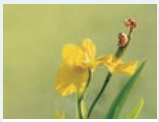
대표 식물

❶ * 옛 연못 터
큰고랭이, 송이고랭이, 통발
❷ 벼과 식물 군락지
❸ 물옥잠, 물질경이
❹ 수련, 자라풀, 올방개
❺ 골풀, 물옥잠, 물달개비
❻ 고마리 군락지
❼ 물억새, 수크령
❽ * 생태습지
마름, 노랑꽃창포, 물옥잠

물옥잠

수련

물억새


노랑꽃창포

만날 수 있는 동물

❶ 쇠물닭, 두꺼비알, 도롱뇽알
❷ 송장헤엄치게, 방개, 소금쟁이
❸ 올챙이
❹ 미꾸라지, 물달팽이, 잠자리수채

율봉근린공원

다양한 놀거리, 볼거리가 있는 공원

율봉근린공원의 면적은 206,835㎡으로 역사문화공간, 맹꽁이생태학습장, 산림생태학습장, 실버테마 공간으로 조성된 공원입니다.

공원 곳곳엔 파발, 신호연, 솟대 조형물 등 다양한 볼거리와 민속 그네, 윷놀이와 같은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드넓은 잔디밭과 다양한 시설이 있어 개인 시간을 즐기기도 좋고,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기도 좋은 율봉근린공원으로 초대합니다.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78

싱그러운 향이 좋은 모과나무

차량용 방향제가 나오기 전, 자동차 실내에 노란 과일을 보셨나요?
탐스런 열매의 향긋한 향이 기분을 좋게 해 천연 방향제로 주로 쓰인 모과나무의 4계절에 대해 알아볼까요?

봄

봄이 오면 두꺼운 겨울옷을 벗듯 모과나무도 옷을 갈아입어요.
묵은 나무 껍질이 비늘처럼 조각조각 벗겨지고 연분홍색 꽃이 피어 따뜻한 봄을 맞을 준비를 하지요.

여름

5장의 둥그스름한 꽃잎을 가지고 있는 모과꽃의 꽃말은 '유혹'이에요. 어여쁜 모습으로 곤충이며 사람을 불러들이고 꽃잎이 하나둘 떨어지면 싱그런 잎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지요.

가을

노란 모과의 상큼한 향이 바람을 타고 솔 솔 불어오네요.
울퉁불퉁한 생김새에 '과일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라는 속담도 있지만, 노랗게 익은 모과엔 비타민C 성분이 많아 피로 회복에 으뜸인 건강 차나 약재로 쓰인답니다.

겨울

봄, 여름, 가을 내내 꽃과 열매로 우리를 기분 좋게 해 준 모과나무는 내년을 기약하며 앙상한 가지만 남아요.

가을 단풍이 물들어 갈 즈음 율봉근린공원 잔디밭에 모과의 향기를 즐기러 오세요

황금빛 꽃비를 선물해 주는 모감주나무

봄이 지나고 조금씩 옷이 가벼워지면 수줍게 노란 꽃잎을 뽐내는 나무가 있어요.
바로 여름을 대표하는 황금꽃, 모감주나무예요.

전체적으로 노란 꽃잎에 중앙이 빨간색으로 물들어있어 마치 태양 같기도 해요.
꽃이 하나둘 떨어지면 황금빛 비가 내리는 것 같아 영명으로는 'golden rain tree'라고 불려요.

꽃이 지고 난 자리에 열매가 달렸어요.
세모난 꽈리모양으로 쭈글쭈글한 모습이 참 앙증맞아요.
푸르던 열매는 익어갈수록 갈색으로 변하는데 갈색으로 변한 열매는 끝 쪽부터 세 갈래로 갈라져요.

갈라진 열매에는 까만 씨가 들어 있어요.
이 씨앗은 매우 단단하고 만질수록 반질반질해져 불교의 염주로 사용되어요.
그래서 염주나무라고도 불리지요.

종이의 원료인 꾸지나무

붉은색 실을 길게 늘여놓은 듯한 꽃을 피우는 나무인 꾸지나무.
꾸지나무는 뽕나무과에 속하며 닥나무와는 구별이 어려운 형제나무 라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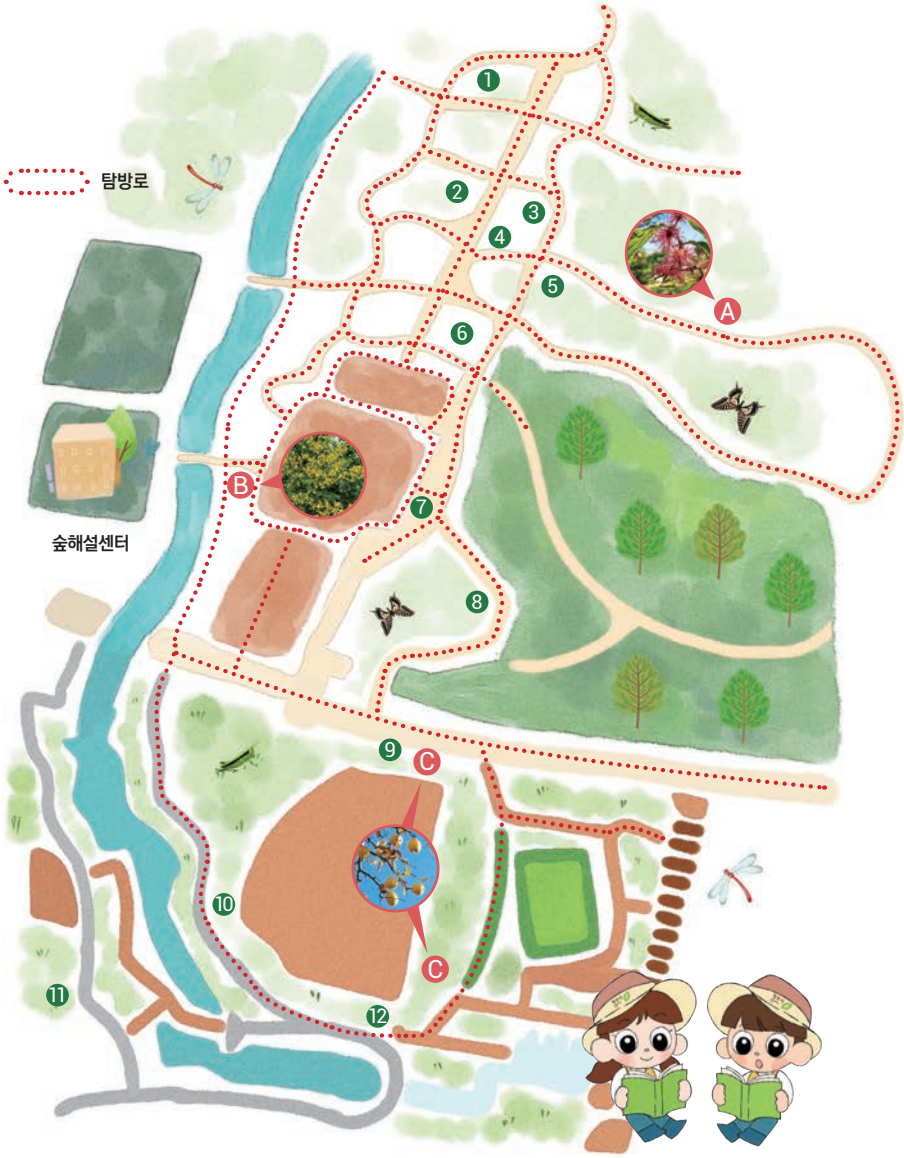
수정이 안 된 암꽃 꾸지나무

꾸지나무와 닥나무의 차이점은
꾸지나무는 암수가 다른 그루에서 자라고
닥나무는 암수가 한 그루에서 자라요.
꾸지나무는 암수 둘 중 한 종류의 나무가 없다면 수정이 되지 않겠죠?

꾸지나무의 껍질 활용

꾸지나무의 껍질은 질기고 튼튼해요.
이러한 특성으로 고급한지는 물론
지폐 등 종이의 원료로 쓰이고,
옛날 옛적 어린아이들의 팽이채로
인기가 좋았답니다.

추천 관찰 탐방로



책에 소개된 식물

Ⓐ 꾸지나무
Ⓑ 모감주나무
Ⓒ 모과나무

꾸지나무

모감주나무

모과나무

대표 식물

❶ 능수버들
❷ 보리수나무
❸ 개오동나무
❹ 꾸지뽕나무
❺ 은행나무
❻ 흰말채나무
❼ 꽃사과나무
❽ 탱자나무
❾ 벚나무
❿ 참느릅나무
⓫ 참나무종
⓬ 이팝나무

보리수나무

은행나무

참나무종

이팝나무

만날 수 있는 동물

네발나비, 호랑나비, 메뚜기, 잠자리

율봉근린공원

새적굴공원

도심 속 힐링 공간

새적굴공원은 수돗물을 공급하던 배수지를 개발하여 조성된 공원으로 실외체육시설과 마을쉼터, 상상놀이터 등 남녀노소 산책하며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입니다.

배수지 자리의 구조물은 모두 철거하지 않고 벽체와 기둥을 살려 공원의 배경과 함께 예술적인 공원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도심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자연을 마음껏 느끼며, 일상의 여유를 누리러 오세요.

위치 _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863

뽕나무에 소가 산다고요?

톡! 새적굴공원 숲어울림센터 창문에 누가 놀러 왔나 봐요~
울릉도에 주로 분포하여 '울릉도하늘소' 라고도 불리는 울도하늘소네요.

울도하늘소 머리

삼각형 머리의 편평한 이마, 큰 눈 그리고 소의 뿔을 닮은 더듬이를 갖고 있어, '하늘을 나는 소' 라 하여 '하늘소'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어때요? 소를 닮아 보이나요?

울도하늘소는 어디에 살까요?

울도하늘소는 뽕나무와 무화과나무만 먹고 살아요.
주로 7~9월에 활동을 하여 짝짓기를 하고 나무속에 알을 낳지요.
그 속에서 겨울을 이겨내며 유충은 번데기가 되고 2주 후 성충으로 우화해요.
새적굴공원에는 뽕나무가 있어 울도하늘소를 만나볼 수 있어요.

울도하늘소

한 쌍의 울도하늘소

울도하늘소 유충

약이 되는 버드나무

새적굴공원 분수대 앞에는 물을 좋아하는 버드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버드나무의 학명은 Salix koreensis Andersson.
학명 중 'koreensis'는 한국에 살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버드나무 영어 이름 또한 'Korean willow'로 대표적인 우리나라 나무지요.

버드나무의 껍질에는 '살리실산'과 '아스코르브산' 성분이 있어요. 살리실산은 통증완화와 항염효과가 있어 아스피린의 원료로 쓰이고 있고, 아스코르브산은 항산화 작용을 하지요.
버드나무는 나무계의 의사 선생님인가봐요.

도깨비불이 나타나도 겁먹지 말아요!

썩은 버드나무의 줄기에 구멍이 생기면 나무 안에 들어있는 인 성분이 캄캄한 밤에 밝은 빛을 내어요. 옛 사람들은 어두운 밤 이 빛을 보고 도깨비가 나왔다며 겁을 먹었지요.
하지만 밝은 낮에 다시 보면 습지 주변 무성한 버드나무 숲이었을 거에요.

춤을 추게 만드는 오동나무와 친구들

새적굴공원에 살고있는 같은 듯 다른 나무인
오동나무, 벽오동나무, 개오동나무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동나무

5~6월, 예쁜 보라색 꽃을 피우는 오동나무는
가볍고 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장롱, 악기를 만드는 데
쓰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야금, 거문고의 주재료로 사용되어
'오동나무만 보아도 춤을 춘다'라는 속담도 있지요.
청주시에는 오근장, 오동동, 오창 등 '오동나무 오(梧)'로 시작하는 지명들이 있어요.
이 지역의 이름들은 당시 무성한 오동나무를 보고 이름을 따온 것으로 추정돼요.

벽오동나무

6~7월, 옅은 노란색 꽃을 피우는 벽오동나무는 잎은
오동나무와 닮았으나 나무껍질이 초록색이라 푸를 벽(碧)
자를 써서 벽오동나무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모든 새의 우두머리로 여겨지는 전설 속의 새, 봉황은
벽오동나무에만 둥지를 틀고, 봉황이 울면 온 천하가
태평하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선조들은 벽오동나무를 즐겨 심으며 봉황이 나타나기를
기원했다지요.

개오동나무

6~7월, 황백색의 꽃을 피우는 개오동나무는 기다란 열매가
겨울을 이겨내고 이듬해 꽃이 필 때까지 나무에 붙어 있어
'노끈나무' 라고도 불리어요.
이러한 모습 때문인지 개오동나무가 심어진 곳은 벼락이나
천둥과 같은 천재지변이 피해 간다고 하여 궁궐이나 절 등
큰 건물이 있는 곳에 주로 심었어요.

추천 관찰 탐방로

책에 소개된 동식물

Ⓐ 버드나무

Ⓑ 울도하늘소 (뽕나무)

버드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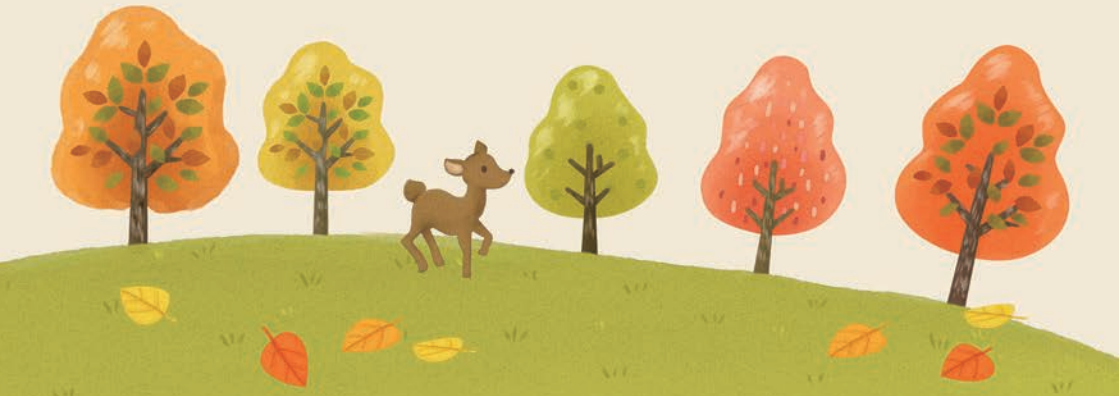
울도하늘소 (뽕나무)

	Ⓒ1 개오동나무	Ⓒ2 벽오동나무	Ⓒ3 오동나무
열매와 씨앗			
설명	콩 꼬투리처럼 길게 늘어진 열매는 최대 30cm까지 자라요. 열매는 여물수록 검을색을 띠고 저절로 터져 씨앗은 땅으로 떨어져 자라나요.	돛단배 모양의 날개에 동그란 씨앗이 달려있어요. 바람이 불면 씨앗은 날개를 타고 날아가 멀리멀리 퍼뜨려져요.	끝이 뾰족한 달걀처럼 생긴 열매는 익어갈수록 끝부분부터 벌어져요. 벌어진 열매 안의 솜털이 달린 씨앗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요.

대표 식물

1. 이팝나무
2. 섬잣나무
3. 현사시나무
4. 팽나무
5. 아까시나무
6. 밤나무
7. 산사나무
8. 상수리나무
9. 참느릅나무
10. 산딸나무
11. 독일가문비나무
12. 무궁화동산
13. 작약

자연물을 활용한
재미있는 놀이



단풍 색상환 만들기

01 아파트 화단이나 공원 또는 숲에서 여러 색의 단풍잎을 찾아요.

02 나뭇잎이 물드는 순서대로 색을 배열해요.

(예: 초록 → 노랑 → 주황 → 빨강 → 갈색 → 검정)

03 동그라미, 세모, 네모, 하트 등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벗나무 잎으로 만든 색상환)

여기서 잠깐! 단풍은 왜 물들까요?

나무는 날씨가 서늘해지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모든 영양분을 줄기에 집중 시켜요.

영양분을 공급 받지 못한 나뭇잎은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되고, 엽록소가 파괴 되지요.

이때 엽록소에 가려져 있던 나뭇잎의 색소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 모습을 보고 **'단풍이 든다'**라고 해요.

잎에 있는 색소 중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으면 붉은색, 탄닌이 많으면 갈색, 카로티노이드가 많으면 노란색 단풍이 되어요.

나만의 곤충 만들기

팀을 나눠 번갈아 가며 주사위를 던져서 그 숫자에 해당하는 부위를 자연물로 만들어요.
* 자연물은 돌, 나뭇잎, 나뭇가지, 열매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주사위를 던져서

- 1이 나오면 꽝
- 2가 나오면 더듬이 두 개,
- 3이 나오면 머리, 가슴, 배
- 4가 나오면 날개 4개
- 5가 나오면 눈 5개 (겹눈 2개, 홑눈 3개)
- 6이 나오면 다리 6개를 만들어요

  나왔던 숫자가 또 나오면 꽝! 이예요.

내가 만든 자연물 곤충의 모습은 어떤가요?

곤충에 대해 알아볼까요?

곤충은 몸이 머리, 가슴, 배로 나뉘고, 다리가 6개지만 눈과 날개의 개수는 종마다 다른 동물을 말해요.
전체 동물 가운데 3/4나 차지하는 만큼 그 수가 많고 종류도 다양하지요.
자기 몸의 5천배까지 번쩍번쩍 드는 개미, 꽃 주변을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우아한 나비,
가을의 대표 곤충 잠자리 등 주변에서 쉽게 곤충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곤충을 만나봤나요?

산가지 놀이

산가지 놀이란

산가지란 수를 셀 수 있는 도구가 없었던 때에 수를 계산하기 위해 수수대, 싸리, 대나무 등을 매끈하게 깎아 사용하던 가는 대를 말해요.
산가지를 이용한 다양한 놀이 중, 재미있게 수의 개념을 알 수 있는 놀이를 해볼까요?

01 산가지를 만들어요.
숲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4-5개씩 주워온 후
일정한 크기(약 20cm)로 잘라줘요.

02 보자기를 펴고 둥글게 앉은 후 산가지를
보자기 위에 두 손으로 세워 잡았다가 펼쳐요.

03 순서를 정하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맨 윗부분의 산가지부터 가져가요.
* 맨 윗부분의 산가지가 아니거나 다른 산가지를 건드리면 다음 사람 순서로 넘어가요.

04 놀이가 끝난 후, 누가 가장 많이 가져갔는지 숫자를 세어보아요.
가장 많은 산가지를 가진 사람이 승리!
* 약속! 놀이 후, 사용한 가지는 숲으로 돌려주어요.

산가지 놀이의 특징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수 개념 및 창의력, 집중력을 키울 수 있어요.
소개해드린 놀이 외에 산가지를 이용한 모양 만들기, 윷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알아보고 아이들과 함께 해 보세요.

이 책자를 통해 청주시 숲해설에 대한 이해와 공원 여가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수록된 내용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청주시 공원관리과 (043) 201-44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CHEONGJU CITY

청주시푸른도시사업본부
공 원 관 리 과

우)28527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북문로1가) 청주시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관리과 Tel. 043-201-4449